

유아미술의 인지적 활동에 관한 연구
-아이스너의 미학적 인식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gnitive Activities of Infant Art
- Focused on Eisner's Aesthetic Epistemology -

주저자

이 안 근 Lee, An-keun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ani@wu.ac.kr

투고일	2018.12.02	심사일	2019.01.22	게재확정일	2019.01.27
-----	------------	-----	------------	-------	------------

본 연구는 2018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과제임.

www.kci.go.kr

목 차

1. 서론

- 1.1 연구목적 및 배경
- 1.2 연구범위 및 방법

2. 아이스너의 미학적 인식론

- 2.1 인식론의 본질과 특징
 - 2.1.1 인지의 광의적 개념
 - 2.1.2 개념형성
 - 2.1.3 표상형식

3. 유아미술활동의 이해

- 3.1 유아미술활동의 의의와 내용
- 3.2 유아미술의 인지적 활동

4. 결론

참고문헌

Keyword

유아미술, 미학적 인식론, 광의적 인지 개념, 개념형성, 표상형식
Infant art, Aesthetic Epistemology, Broad cognition concept, Formation of concept, forms of representation

Abstract

Eisner opposed the dichotomous notion of separating reason and thought. And he presented a broad concept of cognition including the emotions of the qualitiveness accompanied by art activities. In this study, based on the aesthetic epistemology of Eisner's thoughts, infant art activities were discussed from the viewpoint of the broad cognitive concept. The art activity of the infant is to internalize and symbolize the concept acquired through the experience of direct sense.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these expressive activities appear in the whole process of activities in which infants explore, observe, and acquire knowledge. In the process of expressive activity, infants have reflective thinking that judge, interpret, revise, reinterpret, and creatively form concepts around the world. Infants also expand their thinking in an analytical and comprehensive way to express, process, and solve problems. As a result, the whole process of this art activity is the extension activity of thinking that the children search for the object, analogy and re-search.

Therefore, the activities of Infants arts can be a good way to develop cognitive skills through the perception of infants.

This study suggests that art activities are involved in cognitive thinking through research on the cognitive perspective of infant art.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validity that the art education for infants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viewpoint of inquiry and cognition.

논문요약

아이스너는 이성과 사고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관념에서 탈피하여 미술활동에 수반되는 질성의 정서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적 인지개념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이스너의 이러한 사상이 집약된 미학적 인식론에 근거하여 유아미술활동을 광의적 인지개념의 관점에서 논하였다. 유아들의 미술활동은 다양한 감각을 통하여 획득한 개념을 내면화하고 상징화하여 표현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표현활동에서의 인지적 특성은 유아들이 주변세계를 탐색하고 관찰하며 앎을 획득하는 표현활동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대상에 대해 판단하고 해석하며 수정하고, 재해석하며 창의적으로 개념을 형성하는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된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사고를 확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미술활동 전체의 과정은 유아들이 대상을 탐색하고 유추하고 재탐색하는 사고의 확장 활동이다.

따라서 유아미술활동은 유아들의 지각을 통해 인지능력을 키우는데 있어서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유아미술에 대한 인지론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통해 미술활동이 인지적 사고에 관여한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미술교육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의 틀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이에 따라 유아미술교육의 접근에 있어서 탐구·인지적 관점이 타당함을 제언 한다.

1. 서론

1.1 연구목적 및 배경

유아미술활동에 관한 많은 연구와 문헌에 의하면 유아미술활동이 유아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 유아교육에서 이처럼 중요한 유아미술활동이 실제 교육현장의 3-5세 누리과정을 살펴보면, 예술적 경험영역은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로 구분되었으며, 그 세부 활동으로 자연과 주변의 미적 지각과 미술적 요소 등을 탐색하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다른 예술작품 감상하기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미술활동은 대부분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한 미술활동이 중점이 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미술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탐구·인지적인 측면을 간과하여 미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미술활동이 우리의 인지작용에 관여한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제를 위하여 이성과 감성적인 인식을 구분하지 않는 아이스너(E. W. Eisner, 1933-2014)의 미학적 인식론을 기반으로 유아미술의 인지적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아이스너는 예술형식의 인지적 측면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으며 특히 유아미술교육에 있어서 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교육학자이다. 아이스너가 주장하는 인지론은 전통적으로 정서와 인지를 분리하던 이분법적인 인지개념과는 다른 광의적인 인지개념으로써 정서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논

의에서는 이론적인 배경으로 아이스너 인식론의 본질과 특징을 살펴보고 인식론을 기반으로 인지와 정서의 관계 개념과 그에 따라 유아미술활동을 인지적 관점에서 성찰하고자 한다.

인지적 접근방식에 의한 미술교육은 듀이(J. Dewey)의 경험예술론에서 인지적 접근방식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 예술교육의 인지적인 접근은 피아제(J. Piaget), 비고츠키(L. S. Vygotsky), 브루너(J. S. Bruner)와 같은 구성주의 심리학자들, 예술인지론과 구성주의 인식론을 주장한 굿맨(N. Goodman), 다중지능이론을 주장한 가드너(H. Gardner) 등이 그 영향력을 발휘했다.¹⁾ 인지적인 관점에서 미술의 가치를 주장한 아이스너의 미학적 인식론은 듀이의 경험론과 랭거의 예술상징론, 굿맨의 예술인지론, 퍼킨스(Perkins)와 에플랜드(Efland) 등의 인지다원주의(cognitive pluralism), 아른하임(Arnheim)의 지각심리학, 바칸(Barkan)의 학문중심 미술교육 등의 여러 학자와 다양한 아이디어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²⁾ 그리고 그 배경에는 형태심리학(Gestalt Psychology)이 있었으며 미술교육에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

예술이 이처럼 인지적인 접근에서 분석적인 탐구가 시작되면서 1980년대에는 학문에 기초한 미술교육(DBAE: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이 대두되었다. DBAE 모델을 제공한 아이스너는 미술의 영역을 미술사(art history), 미술 비평(art criticism), 미학(aesthetics), 미술 제작(art production)까지를 아울러 미술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중요한 영역으로 제시했다. 또한 아이스너는 예술영역의 질적 관련성에 주목하고, 상상에 의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작품의 은유적 의미를 해석하고, 작품 활동 중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기회를 활용하는 이러한 예술 활동은 사고의 복합적 인지 형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³⁾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술의 본질적인 의미를 탐색하여 미술활동에 내재한 인지적 기능이 유아의 인지적 성장촉진의 발아가 될 수 있는 유아미술의 표현활동을 인지 탐구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김연희.(2007) 존 듀이의 질적 사유와 예술교육, p.15

2)이자현.(2008). 아이스너 인식론에 근거한 미술과 교육과정 개발, p.24

3)옥영희. (2008) 표현활동과 탐구활동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질적 연구: 인지중심 유아미술활동의 현상학적 접근, p. 276

최근 미술교육에 대한 인지적 성격을 규명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실 교육에서는 미술을 여전히 정서적인 영역으로 다루어 결과적으로 미술교육의 가치를 축소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유아미술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재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후속 연구에서 유아미술교육의 새로운 교육 계획안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아미술활동에 내재된 인지적 기능을 논의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 아이스너의 미학적 인식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하면, 우선 아이스너의 미학적 인식론의 본질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아이스너의 『인지와 교육과정(*Cognition and Curriculum Reconsidered*), 2003』, 『새로운 눈으로 보는 예술교육(*Education Artistic Vision*), 1995』, 『예술교육론(*The Art and the Creation of Mind*), 2007』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아이스너 인식론의 사상적 배경이 된 핵심문헌으로 존 듀이(Dewey)의 『경험으로서의 예술(*Art as Experience*), 1934』과 표상형식에 관한 고찰을 위하여 랭거(Langer)의 『예술이란 무엇인가(*Problems of art*), 1957』, 굿맨(Goodman)의 『예술의 언어들(*Language of art*), 1968』, 아른하임(Arnheim)의 『시각적 사고(*Visual Thinking*), 1969』를 중심으로 이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아이스너가 제시하는 인지의 개념과 개념형성, 표상형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유아미술활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 유아미술활동의 의의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아이스너의 미학적 인식론을 기반으로 유아미술활동이 인지적 방식에 의한 표상활동이라는 관점으로 논의할 진행하고자 한다.

2. 아이스너의 미학적 인식론

아이스너의 미학적 인식론에서는 경험과 감각의 역할, 인지와 표상형식 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이스너는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듀이와 아른하임, 굿맨, 랭거의

논문들을 인용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⁴⁾ 따라서 그의 인식론은 이 학자들의 사상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이스너의 인식론에서 제시하는 경험과 감각에 대한 본질은 듀이의 자연주의적 경험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시지각 이론은 아른하임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이스너는 인지의 개념을 교육의 핵심적 측면으로 다루며 인간의 정서와 감정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의 인지관으로 확장시켜 교육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미학적 인식론에서는 미적 경험, 예술과 문화 등의 미학적 안목에 의한 감식안 등을 다루고 있다.

2.1 인식론의 본질과 특징

아이스너가 제시하는 인식론의 과정을 크게 구분하여 본다면, 첫째로 경험이란 인간유기체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다. 둘째로 그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하여 생성된 경험은 사(私)적인 개념을 지니게 된다. 셋째로 사적영역의 개념은 표상형식의 수단을 통하여 공적인 성격으로 변환하게 된다. 그 결과 사회적 차원이 더해진 공적 개념으로 공유되면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이러한 순환으로 인지가 개발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이스너 인식론의 본질에서 인지활동이란 인간이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하여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의 접촉에서 갖게 되는 질적 특성, 즉 ‘질성’을 경험하여 삶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을 유기체로써 파악하여 예술 경험론을 제시한 듀이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아이스너 인식론을 이해하기 위해 듀이의 경험 예술론에 제시된 경험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듀이는 경험론에서는 인간을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기체의 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유기체적 삶의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험 또한 본질적으로 삶의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듀이는 경험론의 핵심을 연속성(Continuity)과 상호작용(Interaction)

4) 이자현(2008). 위 논문, p.25

의 원리로써 제시했다. 경험에서의 연속성의 원리는 인간의 연속된 삶에 의해 경험 또한 변화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행된 경험의 결과들은 연속적으로 축적되며 후속되는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의 과정은 삶이 지속되는 한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재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적 사고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경험은 그 자체로써 교육의 내재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 듀이는 “교육이란 경험의 끊임없는 재조직 또는 재구성”⁵⁾ 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험의 연속적인 변화와 성장이 한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와 문화의 발전으로 변환하고 성장”⁶⁾ 한다는 것이다. 즉 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 사회적 차원으로 객관화된다면 그 경험은 지속되면서 사회와 문화를 지속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환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경험에서의 상호작용의 원리는 경험의 주체인 유기체와 객체인 환경이 서로 주고받는 것, 즉 ‘행함(trying)’ 과 ‘겪음(undergoing)’⁷⁾의 능동적인 요소와 수동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관계를 확립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불확실한 자연적 상황을 확정적인 것으로 이끌어내는 탐구과정이 인지활동이다. 그리고 이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지성(intelligence)의 일이며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사고의 과정이기도 하다. 아이스너는 이와 같은 듀이의 경험론을 토대로 하여 유기체로서의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생성되는 경험이론을 그의 미학적 인식론의 본질에 두고 있다.

또한 아이스너는 자신의 인식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랭거의 예술상징론에서 제시되는 ‘표상적 형식(presentational form)’ 과 ‘표현적 형식(expressive form)’ 그리고 예술이 본질적으로 인지적이라고 주장하며 예술인지주의를 구축한 굿맨의 예술인지론, 시지각과 사고의 인지작용의 상관관계를 주장한 아른하임의 지각심리학을 반영하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 아이

스너 인식론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이에 관련된 랭거와 굿맨, 아른하임의 이론적 주요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랭거는 그의 예술상징론에서 예술의 형식 또한 과학적 언어처럼 명료한 형식임을 주장한다. 랭거는 그 형식의 주장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두 가지 주요한 양식의 양식을 추론적 양식과 비추론적 양식으로 구분한다.⁸⁾ 추론적 양식이란 언어형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과학적이며 논리적인 특징을 갖는 탐구적 영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은 합리적이고 명제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반면에 비추론적 양식은 언어형식의 표현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인간의 감정과 정서 등은 이 영역에 해당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술작품은 표상적 형식으로 그것이 지시하는 사물과 공통된 논리적 형식을 갖지만 추론적 형식은 아니다. 즉 표상적 형식이 명료화될 수는 있지만 고정된 의미나 독립적 상징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미술작품은 인간의 정서나 감정 상태를 직관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비언어적 상징이기 때문에 표상적 상징이라는 속성을 지닌다. 랭거는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켜 표현적 형식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표현적 형식은 대상의 속성이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어 의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일종의 지각된 전체나 상상된 전체로써 예술의 본질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라고 한다.⁹⁾

즉 랭거는 예술작품이 곧 표현형식이며, 그것이 표현하는 것은 인간 감정의 본질이며, 예술을 표상적 상징의 전형으로, 그리고 그 상징의 지시체를 감정으로 간주했다. 또한 랭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나 논리적 기호 등이 상징으로서 명료한 형식인 것처럼 인간의 감정 또한 상징으로서 명료하다고 보았다. 랭거에게서 인간의 감정은 유기체적 감각의 자극, 복잡한 정서, 고통 등 주관적인 경험에서 오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랭거는 예술이란 인간의 감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명료한 형식이라는 관점을 갖는다.¹⁰⁾ 이러한 관점은 아이스

5) Dewey(1916).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이흥우 역, 주석. (2016) 민주주의와 교육. p. 89

6) Dewey(1934). *Art as Experience*. 박철홍 역. (2017) 경험으로서 예술. p.70

7) Dewey(1938). *Experience & Education*. 강운중 역. (1995) 경험과 교육. p.54

8) Langer. (1957). *Problems of art; Ten Philosophical Lectures*. Charles Scribner's sons. p.13

9) 이안근. (2018) 아이스너의 미술교육론을 기반으로 한 자연친화적 유아미술교육에 관한 연구. p. 33

10) Langer.(1957). *ibid*, p.17

너의 표상형식에서 랭거가 예술상징론에서 제시하는 예술이 명료한 형식의 표현수단이라는 특징적 요소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이스너는 인간의 타고난 인지적 영역의 특성 중 하나는 경험을 기호화하고자 하는 것¹¹⁾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관점은 예술작품을 기호의 구조와 체계 안에서 재구성하여 예술이 인지적 특성을 갖는다고 주장한 굿맨의 예술철학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굿맨은 듀이와 마찬가지로 과학과 예술, 인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의 이분법을 부정하였으며 정서가 인지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다시 말하면 굿맨은 예술도 과학과 마찬가지로 질적 사고 형태의 인지능력을 요구한다는 듀이의 주장을 이어받아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인 인지주의 예술론을 발전시켜¹²⁾ 예술을 인지적 접근으로 탐구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을 이루었다. 굿맨은 그의 예술인지론에서 예술의 언어적인 성격을 예술이 언어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관점으로 보았다. 즉 예술의 재현이나 표현하는 예술의 기능을 지칭(reference)-지시(denotation)와 예시(exemplification)-유비(類比)관계로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재현과 표현은 어떤 것을 가리키거나 나타내는 대상과 술어사이의 언어적 성격을 갖는 점에서 예술언어로 보았으며, 굿맨은 이러한 예술언어분석을 통하여 예술에 대한 인지적 접근에 중요한 철학적 근거를 제공했다.

아이스너는 시지각을 인지적인 관점에서 다루었으며 대부분의 지각활동은 인지하는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그의 관점은 아른하임의 지각심리학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미술활동에서의 인지적인 특성을 밝힌 아른하임은 그의 저서 『시각적 사고(*visual thinking*)』에서 지각 자체가 인지활동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사고 작용이 지각 자체의 핵심요소임을 제시하였다. 즉 아른하임이 언급하는 “사고의 작용이란 능동적인 탐색과 선택, 본질을 파악하고 단순화하며 추상, 교정, 분석과 통합, 완성, 비교, 정정,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종합, 분리, 맥락의 입력 등이 포함된다”¹³⁾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

면 아른하임은 지각에 관여하는 정보의 수용과 처리 등의 모든 정신활동이 인지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른하임은 “사고(thought)를 지각활동에서 분리시킬 방도를 찾을 수 없다. 최소한 원칙적으로나마 지각에서 작용하지 않는 사고과정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지각은 시각적 사고이다.”¹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르면 예술작품에 표현된 형태를 본다는 것은 그 작품의 물리적 구조와 보는 사람의 정신적 과정이 인지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이스너의 미학적 인식론의 본질은 인간 유기체가 환경의 특질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상적 경험이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성된 개념은 표현형식을 통하여 공적으로 공유되며 사회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는 순환의 과정을 거치며 인지가 계발된다는 것이다.

인식론의 특징은 예술이란 인간의 정서나 감정을 표현하는 비언어적 상징기호이다. 또한 시각적 사고에 의한 지각활동을 통하여 예술을 인식 가능한 기호로 전환시킴으로써 명료한 인지적 형식으로 간주하게 된다. 즉 아이스너의 인식론에서 제안하는 개념형성이나 감각, 표상형식 등은 모두 앎을 지향하는 인지적 성격을 갖는 예술의 본질적인 관점이다.

2.1.1 인지의 광의적 개념

아이스너는 인지에 대한 기존의 개념이 매우 협소했음을 지적하며 인지를 좀 더 광의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통적으로 서양철학에서는 이성을 강조하는 대신 감정에 주목하지 않았다. 심지어 플라톤은 감각에 의존하는 지식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했고 감정은 인간으로 하여금 정신을 혼란시켜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¹⁵⁾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관점은 감정보다 사고를 우위에 둠으로써 인지와 비인지 즉 감정과 이성을 분리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졌다. 결과적으로 육체와 정신을 구분하고 감정과 사고를 구분하여 점차 우리의 교육정책 수립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구

11) Eisner(1994). *Cognition and curriculum reconsidered*.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박승배 역. (2016) 인지와 교육과정, p.16

12) 김연희. (2012) 존 듀이의 교육미학, p.130

13) Arnheim(1969). *Visual think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enewed 1997, p.13

14) Arnheim(1954). *Art and visual percep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김춘일 역, (1995) 미술과 시지각, p.37

15) Eisner(1994). *ibid*, p. 62

분의 편협적인 인식은 교육의 목적과 지향을 인지발달에 맞추어 인지과목과 비인지적인 과목을 구별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인지적인 과목이라는 수학이나 과학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며 미술과 같은 비인지적인 과목은 보조적인 과목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아이스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광의적 의미의 인지개념을 주장하며 학교교육에서 인지와 비인지적인 과목을 구별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하였다. 즉 인지활동을 수반하지 않는 감정 활동도, 감정 활동을 수반하지 않는 인지활동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정과 인지는 서로 독립적인 과정이 아니며 ‘감정적인 영역과 인지적인 영역이 서로 분명히 다르기는 해도 항상 함께 존재한다(Piaget, 1973:47, 재인용)’는 피아제의 말을 들어 강조했다.¹⁶⁾ 이러한 아이스너의 주장은 지각자체가 인지활동이라고 주장하는 아른하임의 시지각 이론과도 상당부분 맥이 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이스너 인식론에 영향을 미치게 된 두 이는 그의 예술경험론에서 소위 감정적인 영역이라는 예술과 추론적인 지적 사고의 영역이라는 과학에 대해 논하면서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질적인 사고 작용은 과학자가 기호나 수학과 같은 관점에서 사고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예술가는 경험된 사물의 질적 특성을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과학자는 경험된 사물의 질성을 대신하는 상징적 매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예술가와 구별¹⁷⁾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예술이 무관심한 관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성적인 사고와 탐구활동으로 성취되는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아이스너는 이러한 관점을 배경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여 인지한다는 것에는 감정적인 특질이 작용한다는 광의의 인지 개념을 제시하며 기존의 정서와 지식의 이분법적인 논리를 거부하였다. 즉 아이스너가 제시하는 인지적 개념은 이성적·논리적 인식만을 인지로 여기던 관점에서 감각기관에 의한 감성적 인식까지 포함된 것이다.

2.1.2 개념형성

아이스너는 개념의 형성을 감각체계의 생물학적

근원에 두고 있다. 생명 유기체가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의 경험을 통하여 개념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 때 어떠한 개념도 감각적인 정보 없이는 형성될 수 없으며, 개념의 종류나 정교성은 구체적인 감각이 구분되는 정도에 의해 결정¹⁸⁾된다는 것이다. 아이스너의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인지를 이루는 일체의 개념은 감각을 통한 정보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며, 개념형성에 있어서 또한 감각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아이스너는 전통적인 사고에서 개념형성은 항상 추론적인 언어에 의존한다고 보았으며 질적인 개념, 즉 비언어적 형식에 의한 개념형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질적 영역에 의존하는 표상형식의 예술이나 음악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언어로 개념화 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작곡가가 음악을 작곡하기 위해 떠오르는 악상을 악보에 옮기기 위해 언어로 개념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는 우리가 사고라고 부르는 활동을 모두 담아낼 수 없으며, 언어도 인간의 사고를 담아내기 위한 다양한 형식 중의 하나’라는 언어학자 촘스키(Noam Chomsky)의 글을 인용¹⁹⁾하며 아이스너는 추론적 언어가 아닌 감각활동, 즉 질성과 관련하여 형성되는 개념에 주목하였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모든 개념이 질적인가에 대한 물음, 즉 ‘무한’이나 ‘범주’ 등과 같은 질적인 개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어에 대해서도 아이스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추상적인 용어라고 해서 그 질이 감각재료에 근원을 두지 않는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범주’라는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시각적이거나 시각화가 가능한 재료를 이용하여 의미를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의미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이미지로써 언어적인 개념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념 형성에 있어서 감각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직관(intuit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어원인 ‘Intuitus’로 이것은 ‘눈으로 보다’라는 뜻을 가진 것에서 찾을 수 있다.²⁰⁾ 즉 본다는

16) Eisner(1994). *ibid.*, p. 59

17) Dewey(1934). *Art as experience*. New York: Perigee. 박철홍 역, (2017) 경험으로서 예술 I, p.165

18) Eisner(1985). *The Art of Educational Evaluation: Personal View*. London: The Falmer Press, p. 440

19) Eisner(1994). *ibid.*, p. 73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닌 대상의 본질을 자세히 주시한다는 것이며, 의미 형성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환경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체를 다양한 감각기관을 사용하여 경험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아이스너가 제시하는 광의적 개념의 인지활동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경험도 가능하지 않으며 그것은 사고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2.1.3 표상형식

아이스너는 그의 인식론에서 표상의 형식(forms of representation)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다루었다. 아이스너에 의하면 우리가 다양한 감각체계를 통하여 형성된 개념은 명백히 사적인(private)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이렇게 획득된 사적 개념이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도록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사적인 영역에 머물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적 개념을 타인과 공유될 수 있는 공적인(public)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수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환의 수단을 아이스너는 표상형식이라고 한다.

정리하자면, 표상형식이란 내적이며 사적인 개념을 외적이며 공적인 상태인 언어나 사진, 무용, 그림 등의 다양한 형식²¹⁾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다. 예를 들면, 화가가 자신의 추억이 있는 어느 특별한 장소를 걷는다면 화가의 경험에는 다양한 질이 혼합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고자 할 때 화가는 시각적 이미지의 표상형식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시각화함으로써 자신의 사적 개념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만일 이러한 상황이 작곡가에게 주어진다면 그의 표상형식은 청각적인 형태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학자라면 사회학적 카테고리, 시인이란 시적 언어로 그 특별한 장소에서 얻게 된 개념을 공적개념으로 표현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어떠한 개념에 대한 표상형식의 수단은 선택적으로 일어난다. 바꾸어 말하면 누군가에 의해 선택된 표상형식은 또 다른 표상형식에서 표현될 수 있는 측면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다

시 말하면 어떠한 표상형식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다는 의미이다.

표상형식은 표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개념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해 아이스너는 우리가 던지는 그물의 종류가 우리가 잡는 물고기의 종류를 결정²²⁾한다고 말한다. 표상형식은 어느 것을 선택하든 지각력을 가진 개인이 감각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질로 구성된 환경과의 교류에 의해 경험으로 형성된 개념을 외현화(外現化)하려는 욕구에 의한 필요 수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표상형식이란 전달 수단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도 피드백을 제공하게 된다.

아이스너는 인지적 활동에 의한 표상형식의 처리방식을 모방적(mimetic), 표현적(expressive), 관습적(conventional) 방식으로 분류하였다.²³⁾ 이 각각의 분류를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모방적 방식이란 모방을 통해서 전달하는 유형으로 상형문자나 그림문자에서부터 사진과 입체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이에 속한다. 간단한 예로 고속도로 표지판을 들 수 있다. 표지판은 도로의 커브나 주변상황을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나타내어 비록 도식적이기는 하지만 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현적 방식은 우선 사물의 표면적인 특징이 아닌 그것의 본질적인 속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어느 빈민가 내부의 삶을 파악하고자 할 때 드러난 외적 모습뿐만 아니라 그 내적 삶의 모습을 관찰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면, 표현하려는 질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표현적 방식이 중요하다.

관습적 방식은 인간이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그 사회 속에 존재하는 관습을 배우게 되는데, 빨간 신호등이나 십자가 등 담화적 어휘는 대부분 관습적 양식의 예에 속한다. 담화에 익숙한 어휘를 굳이 이미지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그것을 가리키는 대상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는 필요하다. 이처럼 우리의 개념을 표상하는 다양한 표상형식의 수단과 방식은 각각의

20) Eisner(1994). ibid, pp.79-80

21) Eisner(1994). ibid, p. 87

22) Eisner(1994). ibid, p. 90

23) Eisner(1994). ibid, p. 107

고유한 특질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표상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가장 적합한 표상의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통하여 경험하며 익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유아미술활동의 이해

3.1 유아미술활동의 의의와 내용

미술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온 표현활동의 수단으로써 우리 삶의 한 부분이다. 또한 미술은 글을 습득하기 이전의 유아들에게 색이나 모양 등의 요소들로서 시각적인 언어이며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어왔다.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외부 환경을 탐색하고 자극에 의한 감각을 통하여 경험하며 인지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성장한다. 이에 대해 듀이는 자신의 예술론에서 경험의 연속성에 의한 성장이 곧 교육의 내재적인 특질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우리는 경험에 의해 개념을 형성하고, 형성된 개념을 표상형식의 수단을 통하여 표현하게 된다. 표현의 수단으로써 미술활동은 유아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학습으로 다루어진다. 유아미술교육의 중요성과 목적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학자들의 연구관점에 따라 교육의 목적을 다르게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술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있으며 이것이 미술교육의 근본적인 의의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아미술교육은 예술교육과 통합적인 방법으로 주변세계와 자연을 탐색하고 이해함으로써 미적 안목과 심미감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의 발달을 자극하는 교육적인 효과와 이를 통하여 세상에 대한 인식력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유아들은 미술활동에서 인간의 본능적인 호기심으로 주변세계를 탐색하고 조작하며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쁨과 분노, 즐거움 등 자신의 내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유아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된다. 또한 집단 미술활동에서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자아개념의 발달에 영향을 받게 된다.

신체적인 측면에서 유아미술활동은 유아의 대·

소근육의 발달과 지각운동 능력, 눈과 손의 협응력, 감각 등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이것은 유아들이 미술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만들고, 자르고, 붙이는 등의 동작활동이 신체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아발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미술활동에 대해 한국 미술교과교육학회(2004)역시 유아미술교육의 의의를 의사소통의 수단, 미적 감각의 발달 향상, 의사결정력 증진, 지적·신체적 발달을 돕는다²⁴⁾고 제시했다.

아이스너(1995)는 미술을 하나의 지식체계로 인정하고 미술활동에 대해 근본적인 이해를 기초로 하는 미술교육을 주장하면서 미술교육의 내용에 미술제작 외에 미술비평 및 미술사, 미학을 미술교육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유아미술활동의 구성에는 개정 유치원교육과정(2013)의 3-5세 누리과정의 예술경험 영역으로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로 구분하여 구성되었다. 그 세부 활동내용으로 ‘아름다움 찾아보기’에서는 자연과 주변에서 미적 지각과 미술적 요소 등을 탐색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술적 표현하기’에서는 탐색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창의적인 표현활동하기로 구성되었다. 또 ‘예술 감상하기’에서는 예술작품을 접하면서 미적요소를 탐색하고 감상하기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러한 미술활동이 음악이나 춤, 극 활동 등과 통합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제시되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아이스너가 제시한 미술제작과 미술비평, 미학을 아우르는 교육내용의 구성이라고 본다.

3.2 유아미술의 인지적 활동

유아들의 미술활동은 오감을 통하여 직접 체험 대상을 탐색함으로써 습득한 개념과 느낌 등을 재사고(再思考)하며 상상하는 탐구적·질성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유아의 미술활동은 이러한 질성적 사고에서 시작되며 이 질성에 의한 반성적 사고의 경험은 인지적인 탐색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미술활동에서 유아들은 다양한 재료를 탐색하고 질감과 촉감을 느끼며 지각된 감각의 확장을 표현함으로써 불명확한 의미를 명

24)손혜경. (2016) 유아를 위한 자연물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p.14

료화하고 구체화하며 상징화시킨다. 이와 같은 직접체험에 의한 유아미술활동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 있는 경험의 완성이며 탐구활동의 결과로서 가치가 있으며 중요하다. 사실상 미술활동은 탐구와 분리될 수 없는 연속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미적 경험 활동이다. 유아들의 이러한 의미 있는 경험은 듀이가 그의 예술론에서 제시하는 ‘하나의 경험’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경험을 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경험이 발전하고 성장하여 완결된 경험의 상태인 미적 경험²⁵⁾을 한다는 것이며, 미적 경험을 한다는 것은 질성적 경험인 정서를 수반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아이스너가 제시하는 확장된 의미의 인지적 활동의 과정이기도 하다.

유아들이 미술활동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표상 형식은 서로 다른 감각체계 사용이 강조되며 여러 종류의 표상형식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것은 표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수정하며 세밀하고 명료한 과정의 인지적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유아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이미지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대처해 나가는 지력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면, 유아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우선 대상, 재료, 색 등을 선택한다. 그리고 의도했던 대상을 구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색이 혼합된다든지 흘러내려 그림을 망치게 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찾게 되며 원인과 결과에 대해 스스로 학습한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색이 없는 경우 혼합하는 과정에 의한 경험에서 어떤 객관적인 현상을 추론하여 얻어낸 결과로 나름대로 색에 대한 체계를 개념화하게 된다. 이처럼 인지는 지각을 통하여 개념화하고 추론하여 지식이 되는 복합적인 정신활동의 과정에 의해 형성된다. 이에 대해 아이스너는 유아들이 시각화 이미지를 드러내는 미술적 의도의 구상에서 재료의 특성을 다루며 창작하고, 통제하는 색이나 선, 형태 등을 다루기 때문에 질적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성의 양식, 곧 질적 지성(qualitative intelligence)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질성은 직접 탐색에 의

한 느낌이나 판단으로 질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며, 미술활동의 과정에서 모양이나 크기, 색, 부피, 공간, 위치, 방향 등의 분류개념, 서열화 개념 등을 이해하게 되고 문제해결 능력과 수나 개념, 물질의 변화과정을 관찰하고 실험하면서 탐구 인지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유아들은 분석적이고 판단능력을 발휘하며 지식과 이해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것은 곧 유아의 미술활동에 대한 인지이론 접근에 의하면 유아들은 알고 있는 것을 미술로 표상하며, 사물과 주변세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미술표상이 보다 정교하고 세부적²⁷⁾으로 된다고 한다.

유아의 미술활동은 예술적 활동이라기보다는 물체나 재료를 통하여 그것을 다루는 경험을 즐기며, 자신의 정서와 기쁨, 즐거움과 슬픔, 분노 등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정서를 인지의 영역으로 다룬 아이스너는 미술활동의 표현활동이 곧 인지적인 탐구활동²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미술활동이 시지각의 비중이 크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인지적(cognitive)’인 것과 ‘인지(cognition)’의 용어 의미에 지각의 개념을 포함해서 의미를 확장시키며 지각자체가 인지활동이라고²⁹⁾ 주장하는 아른하임의 이론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학자는 아른하임 외에도 인지심리학의 선도자인 나이서(Urie Neisser) 역시 지각을 하나의 인지활동으로 보았고, 피아제(J.Piaget)또한 사고 과정의 인지적인 측면과 감정적인 측면 간의 뚜렷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³⁰⁾

미술활동에는 표현활동뿐만 아니라 감상활동도 포함된다. 유아들은 미술활동에서 자신의 작품과 다른 사람의 작품을 비교하며 해석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미술비평에 해당된다. 미술비평은 미술작품을 통한 시각적 해득력(visual literacy)으로 미술에 대한 인지적 관점

25)Dewey(1934). *Art as experience*. New York: Perigee. 박철홍 역.(2017). *경험으로서 예술 I*, p.35

26)Eisner(1972). *Education artistic vision*. 서울교육대학교 미술

교육연구회 역,(1995)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p.130

27)지성애. (2015) 과학과 융합한 유아 미술교수학습 모형 개발 및 효과 분석, p.343

28)Eisner(2002). *The art and the creation of mind*,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강현석·박승배·김혜숙 외 4인 역. (2007). *예술교육론: 미술교과의 재발견*, p.98

29)Arnheim(1969). *Visual think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enewed 1997, p.13

30)옥영희. (2008). 표현활동과 탐구활동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질적 연구: 인지중심 유아미술활동의 현상학적 접근, p.282

이라 할 수 있다. 시각적 해득력이란 보는 것을 읽는다는 의미로 예술을 정서·표현의 영역에 한정두지 않고 읽어내는 시각적 언어의 일종으로 간주하게 되는 개념이다. 이것은 예술이 수학이나 과학적 기호로는 만들어 낼 수 없는 질적인 언어기호로써 사고 훈련을 위한 효율적인 도구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또한 아이스너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미술창작과 비평, 미학, 미술사를 아우르는 DBAE 방식의 교육적 접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유아미술활동에 관한 연구와 논의를 종합하자면, 첫째로 유아미술활동은 유아들이 주변세계의 미적요소를 탐색하는 지각경험에 의해 의미를 찾는 활동이며, 이 과정에서 상상과 추상적 개념의 작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지각활동은 질성적 경험을 동반하게 되는데, 아이스너는 이러한 질성을 인지능력으로 간주하였다. 둘째로 유아미술활동은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지각의 복합적 활동에 의한 인지적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아미술활동은 유아들이 지각의 복합적인 활동에 의해 의미를 획득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도록 한다. 이러한 문제해결 능력은 질성에 의한 반성적 사고능력, 인지능력에 의한 것이다.

아이스너는 미술활동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감각이 지식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감정과 인지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이스너의 지식관점에서 지식·인지의 범위는 확장되고 미술은 학습자의 사고인지의 풍부한 발달에 기여한다는 논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이스너의 미학적 인식론에 근거하여 유아미술활동의 인지적 능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선 아이스너의 인식론에는 듀이의 경험론의 본질적 특성이 내재되어 일상적 경험이 미적경험을 지니는 하나의 경험으로써 경험의 연속성에 의한 교육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또한 아이스너의 인식론의 특징은 랭거와 굿맨, 아른하임 등의

이론을 수용하여 구성되어 있다. 즉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상징적 형식으로서 예술의 본질적인 가치를 주장한 랭거의 예술기호론과 예술을 인식 가능한 상징기호로 전환시켜 지식론과 연결시킨 굿맨의 예술인지론, 시각적 사고 과정을 다룬 아른하임의 시지각 이론이 내재되어 있다.

아이스너는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미술의 본질적인 이해와 특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미술이 독립적인 교과로서 다른 교과를 보조한다거나 대체할 수 없는 질성적 사고의 인지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미술활동을 체계적인 학문연구로 가능하게 하였다. 아이스너의 인지개념은 광의적 개념을 갖는 것으로써 미술활동에 있어서 수반되는 질성의 정서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이스너의 미학적 인식론에 근거하여 유아미술활동을 광의적 개념의 인지적인 관점에서 논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를 종합하면, 유아의 미술활동은 직접적인 감각 체험에 의한 인지적 경험을 통하여 획득한 개념을 내면화하고 상징화하여 표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상활동에서의 인지적 특성이란 유아들이 주변세계를 탐색하고 관찰하며 앎을 획득하는 지각적인 인지과정으로, 표현활동 전 과정에서 나타난다. 유아들은 이 표현활동의 과정에서 표현대상을 탐색하고 해석하며 수정하고, 재해석하며 창의적으로 개념을 형성하는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된다. 또한 표상방법이나 순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사고를 확장하는 인지적 활동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미술활동의 전체의 과정은 유아들이 대상을 탐색하고 유추하고 재탐색하는 사고의 확장 활동이다.

따라서 유아미술활동은 유아들의 인지능력을 키우는데 있어서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유아미술활동이 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발달뿐만 아니라 창의성 발달 등에 기여한다는 것에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유아미술에 대한 인지론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통해 미술활동이 사고에 깊게 관여한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유아미술교육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미술로부터 무엇을 얻고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유아미술교육에 대한 탐구·인지적 관점의 접근이 타당함을 제언 한다.

참고문헌

- 강은영. (2009). 예술기반 교육연구 방법론에 관한 고찰, *예술교육연구*, 제7권 1호, 45-59
- 교육과학기술부. (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인적자원부. (2011). 5세 누리과정 해설서. 교육인적자원부
- 김대현. (2002). 교육비평의 인식론 탐구, *아시아교육연구*, 3권2호, 153-174
- 김연희. (2012). 존 듀이의 교육미학: 예술교육의 철학과 이론. 경기: 교육과학사
- 손혜경. (2016). 유아를 위한 자연물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중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경애. (2016). 아이스너의 인식론에 기반한 미술교육의 미학적 탐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연주의 5인. (2009). 유아를 위한 미술교육의 통합적 접근. 서울: 창지사
- 옥영희. (2008). 표현활동과 탐구활동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질적 연구: 인지중심 유아미술활동의 현상학적 접근, *조형교육*, 32호, 275-305
- 옥영희. (2013). 아동미술활동에 내재된 탐구활동의 통합적 사고 작용에 관한 연구: 듀이 예술론의 질적 사고를 중심으로. *조형교육*, 48호, 321-353
- 이수정. (2001). 예술에서의 언어적 실천: 굿맨의 예술기호론에 대한 발전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안근. (2018). 아이스너의 미술교육론을 기반으로 한 자연친화적 유아미술교육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자현. (2008). 아이스너의 인식론에 근거한 미술과 교육과정 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옥·임수진 (2016). 탐색·표현·감상의 통합적 유아미술교육. 경기: 정민사
- 지성애. (2015). 과학과 융합한 유아 미술교수학습모형 개발 및 효과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9(6)호, 337-369
- 최재영. (2016). 아동미술활동의 지도와 이해, 서울: 창지사
- Arnheim, R. (1969). *Visual think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enewed. 1997. 김정오 역. (2004). 시각적 사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Arnheim, R. (1954). *Art and visual percep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김춘일 역. (1995). 미술과 시지각. 서울: 미진사.
- Dewey, John. (1934). *Art as experience*. New York: Perigee. 박철홍 역. (2017). 경험으로서 예술 I, 경기과주, 나남출판사.
- Dewey, John. (1934). *Experience & education*. New York: Collier Books. 강운중 역. (1995). 경험과 교육, 서울: 배영사.
- Dewey, John.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이홍우 역, 주석. (2016). 민주주의와 교육, 경기: 교육과학사
- Eisner, E. W. (1972). *Education artistic vision*.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 (1995).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서울: 예경.
- Eisner, E. W. (1982). *Cognition and Curriculum: a basis for deciding what to teach*. New York & London: Longman. 김대현·이영만 역. (1994). 표상형식의 개발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사.
- Eisner, E. W. (1983). *The educational Imagination: on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school programs*. New York: Macmillan College Publishing Company. 이해영 역. (1999). 교육적 상상력: 교육과정의 구성과 평가.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 Eisner, E. W. (1985). *The Art of Educational Evaluation: Personal View*. London: The Falmer Press.
- Eisner, E. W. (1988). *The role of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in America's schools*. L.A: Getty center for education in the arts. 김인용·김대현 역. (1999). 학문기초 미술교육 운동. 서울: 학지사.
- Eisner, E. W. (1994). *Cognition and curriculum reconsidered*.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박승배 역. (2016). 인지와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사.
- Eisner, E. W. (1998). *The enlightened Eye; Qualitative Inquiry and the Enhancement of Educational Practice*. NJ: Prentice-Hall, Inc. 박병기 외 10인 역. (2001). 질적연구와 교육. 서울: 학이당.
- Eisner, E. W. (2002). *The art and the creation of mind*.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강현석·박승배·김혜숙 외 4인 역. (2007). 예술교육론: 미술교과의 재발견.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Goodman, N. (1968). *Language of art: an approach to a theory of symbols*. 김혜숙, 김혜련 역. (2002). 예술의 언어들: 기호이론을 향하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Langer, S. K. (1957). *Problems of art; Ten Philosophical Lectures*. Charles Scribner's sons. 이상열 역. (1993). 예술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크리스천문학가협회.

